

보도	2024.2.23.(금) 조간	배포	2024.2.22.(목)
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

담당부서	은행감독국 건전경영팀	책임자	팀 장	양유형	(02-3145-8050)
		담당자	선임조사역	안상현	(02-3145-8052)

'23.12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[잠정]

1. 개요

□ '23.12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(1개월이상 원리금 연체기준)은 **0.38%**로 전월말(0.46%) 대비 **0.08%p** 하락 [전년 동월말(0.25%) 대비 **0.13%p** 상승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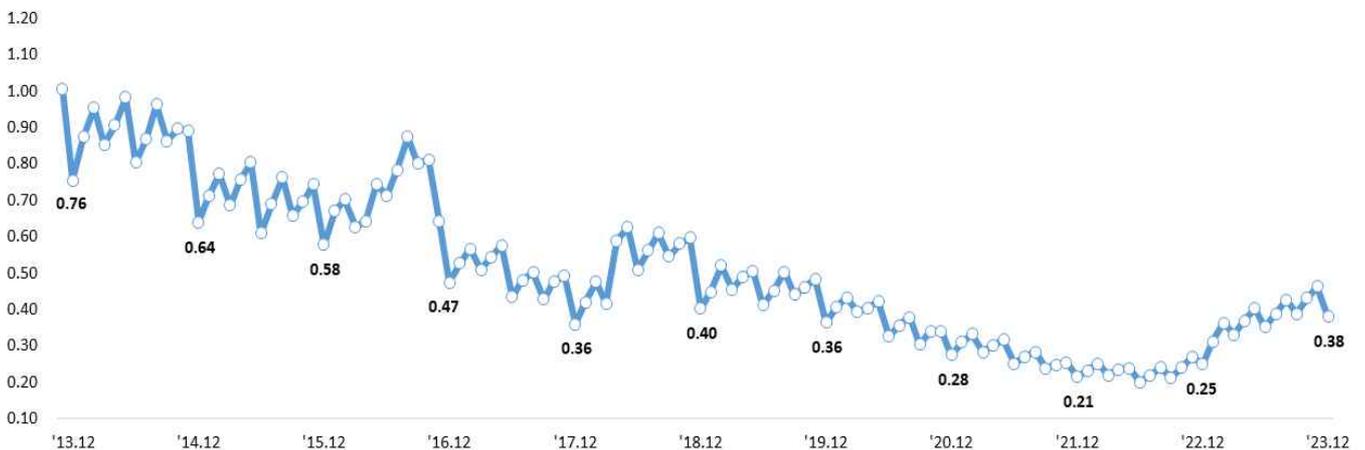
○ '23.12월중 신규연체 발생액*(2.2조원)은 전월(2.7조원) 대비 **0.5조원** 감소 하였으며, 연체채권 정리규모*(4.1조원)는 전월(2.0조원) 대비 **2.1조원** 증가

	('21.12월)	('22.12월)	('23.7월)	('23.8월)	('23.9월)	('23.10월)	('23.11월)	('23.12월)
* 신규 연체채권 규모(조원)	0.9	1.6	2.0	2.2	2.2	2.4	2.7	2.2
연체채권 정리규모(조원)	1.7	1.9	1.1	1.4	3.0	1.3	2.0	4.1
연체채권 증감규모(조원)	△0.8	△0.3	0.9	0.9	△0.8	1.0	0.8	△1.9

○ '23.12월중 신규연체율('23.12월중 신규연체 발생액/'23.11월말 대출잔액)은 **0.10%**로 전월(0.12%) 대비 **0.02%p** 하락* [전년 동월(0.07%) 대비 **0.03%p** 상승]

* 신규연체율(%) : ('22.12) 0.07 → ('23.8) 0.10 → ('23.9) 0.10 → ('23.10) 0.11 → ('23.11) 0.12 → ('23.12) 0.10

원화대출 연체율 추이



※ 은행이 분기말에 연체채권 관리를 강화함에 따라, 연체율은 통상적으로 분기 중 상승했다가 분기 말에 하락하는 경향을 보임

2. 부문별 현황

- (기업대출) '23.12월말 현재 기업대출 연체율(0.41%)은 전월말(0.52%) 대비 0.11%p 하락 [전년 동월말(0.27%) 대비 0.14%p 상승]
 - 대기기업대출 연체율(0.12%)은 전월말(0.18%) 대비 0.06%p 하락 [전년 동월말(0.05%) 대비 0.07%p 상승]
 - 중소기업대출 연체율(0.48%)은 전월말(0.61%) 대비 0.13%p 하락 [전년 동월말(0.32%) 대비 0.16%p 상승]
 - 중소기업인 연체율(0.48%)은 전월말(0.64%) 대비 0.16%p 하락 [전년 동월말(0.36%) 대비 0.12%p 상승]
 -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(0.48%)은 전월말(0.56%) 대비 0.08%p 하락 [전년 동월말(0.26%) 대비 0.22%p 상승]
- (가계대출) 가계대출 연체율(0.35%)은 전월말(0.39%) 대비 0.04%p 하락 [전년 동월말(0.24%) 대비 0.11%p 상승]
 - 주택담보대출 연체율(0.23%)은 전월말(0.25%) 대비 0.02%p 하락 [전년 동월말(0.15%) 대비 0.08%p 상승]
 -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(신용대출 등)의 연체율(0.66%)은 전월말(0.76%) 대비 0.10%p 하락 [전년 동월말(0.46%) 대비 0.20%p 상승]

국내은행 원화대출 부문별 연체율 추이

(단위 : %, %p)

구 분	연체율 시계열 ('13.12월~'23.12월)	'20.12말	'21.12말	'22.12말 (A)	'23.11말 (B)	'23.12말 (C)	증감	
							전년동월 (C-A)	전월 (C-B)
기업대출		0.34	0.26	0.27	0.52	0.41	0.14	△0.11
대기업		0.27	0.24	0.05	0.18	0.12	0.07	△0.06
중소기업		0.36	0.27	0.32	0.61	0.48	0.16	△0.13
중소법인		0.48	0.36	0.36	0.64	0.48	0.12	△0.16
개인사업자		0.21	0.16	0.26	0.56	0.48	0.22	△0.08
가계대출		0.20	0.16	0.24	0.39	0.35	0.11	△0.04
주택담보대출		0.14	0.10	0.15	0.25	0.23	0.08	△0.02
가계신용대출등		0.34	0.29	0.46	0.76	0.66	0.20	△0.10
원화대출계		0.28	0.21	0.25	0.46	0.38	0.13	△0.08

* 은행계정 원화대출금 및 신탁대출금 기준

3. 평가 및 향후 감독방향

□ '23.12월말 연체율은 신규발생 연체채권이 감소하고 연체채권 정리규모 (상·매각 등)가 확대되면서 전월말 대비 큰 폭으로 하락($\Delta 0.08\%p$)

* 연체율(%) : ('23.8) 0.43 \rightarrow ('23.9) 0.39 \rightarrow ('23.10) 0.43 \rightarrow ('23.11) 0.46 \rightarrow ('23.12) 0.38
(전월대비) (+0.04) ($\Delta 0.04$) (+0.04) (+0.03) ($\Delta 0.08$)

□ 다만, 신규연체율이 전년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향후 연체율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

○ 연체·부실채권 정리를 확대하고 충분한 대손충당금 적립을 유도하여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예정